

“벼랑끝 내몰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예산 늘려달라”

중소기업중앙회,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정책간담회 공동사업 확대·스마트 공장 구축 등 12개 건의 호소

“광주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예산이 2년전보다 25% 감소했습니다.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올해 기초 수준의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했는데, 광주시가 별도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호응이 좋은 만큼 지원을 더 확대해주세요.”

“지역 내에서 지역 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 경쟁입찰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적극 활용해주세요.”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대표의 요청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갈수록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의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광주시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입을 모았다. 이들은 공동사업 관련 지원 확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장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 등 12개의 건의 사항을 광주시에 호소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치솟는 대출 금리, 판로 부

족, ‘알테쉬’로 대표되는 중국 유통기업의 공격적인 국내 마케팅, 제조업 인력 부족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회장, 11개 협동조합 이사장과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조종래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임경준 광주·전남 회장은 전체 중소기업을 대표해 “광주시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 공동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제한이 많고 예산도 적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올해 광주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예산은 2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임 회장은 타 지자체의 경우 일자리, 공동시설 지원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예산 규모도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노중호 광주·전남·제주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2018년부터 대기업의 제조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 현장에 전수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



21일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마트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 ‘기초’(생산정보 디지털화) 수준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다만 광주시는 ‘기초’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별도 예산(10억원)을 편성

한 만큼 앞으로 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국선 광주자동차부품판매협동조합 이사장은 서구 매월동 종합유통단지 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 복단 주변도로(중로1-218호선) 개설을 제안했

다. 류승원 광주·전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광주시가 구매하는 콘크리트 블록 제품 가운데 50%가 타 지역 제품”이라며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해주고, 지역으로 제한해 경쟁입찰이 가능한 경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박영희 광주전남제주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법제화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광주시 산하기관에서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잔물재 수급 대책 마련, 도시철도 2호선 물품 구매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모두 12개의 건의사항이 전달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에 대해 “광주시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은 놓치지 않고 지원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며 “광주의 산업을 키우는 입장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광주시에는 28개 협동조합과 20만개에 가까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있고, 50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며 “오늘 건의안들은 시장께서 들어보시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의료계 종사자 맞춤형 ‘메디컬파트너통장’ 출시

광주은행은 21일 의료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입출금통장인 ‘메디컬파트너통장’을 출시했다. <사진>

메디컬파트너통장은 개업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 조건 없이 매월 말 기준 해당 통장에 의료보험급여 또는 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실적이 존재하면 수수료 면제, 금리 혜택, 환율 우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로는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당행 자동화기기(ATM) 현금출금 수수료 면제 ▲영업점 창구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 ▲예금잔액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입출금내역 자동통지(문자) 수수료 면제 ▲외국환당발송금수수료 면제 및 당발송금환율(USD, EUR, JPY 限) 스프레드 50% 우대 등이 있다.

또 일별 최종잔액에 따라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최종잔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 0.01%, 500만~5000만원 미만이면 연 0.50%, 5000만원 이상은 연 1.00%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문수 광주은행 데이터상품전략부 부장은 “이번 신상품이 신규 의료 전문직 자영업자 고객들의 거래장벽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 고객 수요와 편의성 향상을 위한 상품 개발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스크린골프 대회 ‘금호타이어 마제스티’ 성료

금호타이어가 개최한 스크린골프 대회 ‘금호타이어 마제스티X(majestyX) 컵’이 지난 15일 한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인기리에 마무리됐다. 금호타이어 마제스티X컵에는 총 1만8000여 명이 참가했다. 금호타이어는 대회에 참가한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주행성능과 승차감을 갖춘 마제스티X(majestyX) SOLUS TA92 할인 쿠폰을 지급

했다. 경품으로는 1등에게 금호타이어 최고급 타이어 마제스티X(majestyX) SOLUS TA92 4본(1명), 2등 미즈노 아이언 세트(1명), 3위 켈러웨이 페러다임 Ai스모크 드라이버(1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마제스티X는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타이어인 ‘마제스티 솔루스(Majesty SOLUS

)’를 잇는 최고급 제품이다. 윤민석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이번 스크린 대회를 통해 금호타이어 최고급 타이어인 마제스티X 브랜드를 고객들에게 더욱 더 친근하게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태리 AC 밀란과 독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뿐만 아니라 영국 토트넘 홋스퍼, 체코 FK 블라디블레슬라프와도 공식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문화중심도시 투자지구 ‘IR피칭·투자상담회’

광주정보문화진흥원 참가 기업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담회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GICON은 21일 “오는 2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IR피칭·투자상담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오는 29일까지 GICON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는 지역 문화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지역을 지정

해 조세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특례지구로, 광주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과 광주 CGI센터 권역을 포함한다. 이번 상담회는 광주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입주 또는 이전을 희망하는 콘텐츠 기업들을 대상으로 IR피칭(스타트업이 투자자를 설득하는 활동)과 벤처투자자 1:1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 투자조합을 비롯해 콘텐츠 분야 투자조합을 운용중인 벤처투자자 15명가량의 전문 심사역이 참석해 지역 기업들의 투자유치 성공률 상승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기아, 전기차 배터리 이상 징후뎀 문자 알림

전기차 고객 케어방안 발표

기아는 21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이상 징후를 고객에게 문자로 알리는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기아는 문자 메시지 전송과 함께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 제공 ▲배터리 기본 점검 강화 ▲최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적용 등 ‘전기차 고객 케어방안’을 발표했다.

기아는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가 감지한 배터리 이상 징후를 바로 문자로 고객에게 알린다. BMS는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필요한 안전 제어를 수행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 점검과 긴급출동 등을 안내한다.

기아는 또 고전압 배터리 상태, 수냉각 시스템, 외부 손상 등 총 9가지 항목에 대해 무상 점검을

제공하는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여기에 더해 긴급 상황일도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는 전국 애프터서비스(AS) 네트워크에서 이용할 수 있고, 만일 배터리 문제가 확인되면 보증기간 내 무상으로 배터리팩 교환이 가능하다.

기아는 배터리와 관련한 ‘멤버스 기본 점검’ 서비스를 강화해 전기차 고객의 경우 고전압 배터리, 모터 냉각수, 고전압 와이어링 등을 점검받을 수 있다. 기아는 또 배터리 성능 상태 점검 후 진단 리포트를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속방지턱, 불규칙한 노면 등의 외부 충격에 따른 배터리 손상을 우려하는 고객에게 멤버스 기본 점검 시 배터리 케이스의 상태를 설명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월생산자물가지수 한 달만에 상승세 전환

장마 등 영향 채소류 가격 급등

지난달 장마 등의 기후 영향으로 상추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한 달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56으로 전월(119.23) 대비 0.3%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끝없이 치솟다가 지난 4월부터 완화 추세를 보인 뒤 올 6월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지난달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 등 기후로 인해 한 달만에 농산물을 중심으로 상승전환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오르면 1-3개월 뒤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재 하락 안정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문별로는 농림수산물 4달 만에 전월 대비 상승했다. 모든 부문에서 올랐는데, 수산물 2.2%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농산물(1.5% ↑), 축산물(0.4% ↑) 등도 올랐다.

품목별로는 채소류의 상승폭이 컸다. 상추가 전월과 견줘 171.4% 뛰었고, 오이(98.8% ↑), 우럭(8.0% ↑), 닭고기(3.8%), 낫치(3.6% ↑) 등이 올랐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삼성전자 독일 게임스컴서 모니터 신제품 공개 삼성전자가 21일부터 25일(현지시간)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게임스컴 2024’에 참가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공개했다. 게임스컴은 세계 최대 규모 게임전시회로 삼성전자는 800㎡의 역대 최대 규모 전시장을 마련하고 게이밍 모니터 신모델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 모델이 ‘오디세이 3D(Odyssey 3D)’를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렉서스코리아 다음달까지 전기차 무상 점검 서비스

렉서스코리아는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렉서스 전기차 무상 점검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전기차 고객이라면 누구나 전국 렉서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57가지 항목의 정기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무상 정기 점검 항목은 렉서스 전용 진단기를 활용한 EV 시스템 및 냉각장치 점검, 고장 코드 체크를 비롯해 ▲세시 및 보디

점검 ▲모터룸 및 성능 점검 ▲살내 및 실의 장치 점검 등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01.13 (+4.50)
↓ 코스닥	779.87 (-7.57)
↓ 금리(국고채 3년)	2.940 (-0.004)
↑ 환율(USD)	1337.75 (+4.55)